

싸우더라도 U대회·F1 예산은 지켜라

‘대치 국회’속 광주·전남지역 현안 예산 확보 준비상

예산안 與 단독 상정엔 낙관 가능성 커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갈등이 계속되면서 광주·전남지역 현안 예산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처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경우 상당수의 지역 예산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국회는 12월13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284조5천억원 규모의 2009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여야는 예초 1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며 이에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와 함께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

이 과정에서 일명 ‘형님 예산’으로 불리며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를 받던 포항지

역 예산이 상당수 반영된 반면, 광주·전남 현안 예산 일부가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당시 누락된 예산은 여수엑스포 타운 건설 관련 주택공사의 손해 보전 부족분 408억원, 고흥 우주산업 클러스터 30억원, 광주 태양광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 20억원 등이었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이 호남예산에 대해 누락하지는 않아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4대강 사업 예산이 결려있어서 여야 대치가 어느 해보다 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력을 집중, 4대강 예산을 삭감하려는 반면, 한나라당은 실력을 행사해서라도 원안 통과를 관철하려 하다 보면 과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난

해처럼 한나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고 이 과정에서 광주·전남 지역 예산이 누락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24일 현재 광주 지역의 경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사업으로 공예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비용 20억원과 문화상품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억원, 문화콘텐츠기술(CT) 연구원이 애초 계획대로 광주에 설립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비 33억원을 국회에서 반영토록 요청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우선 지역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지역 현안 예산을 지키고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이런 과정에서 어렵게 반영한 예산이 국회 파행의 와중에서 다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지역 의원들이 힘을 모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내년 주요 현안 국비

현안사업	예산(억원)
2015하계U대회	40
산업용 레이저 핵심 부품 개발	60
나노 융합 상용화 플랫폼 개발	17
광주국립도서관 건립	600
클린디젤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20
광주R&D특구 지정 및 육성	77
F1 대회 경주장 건설	880
F1지구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210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진입도로 개설	100
하의~신의 연도교 개설	100
입해~회원 연결도로 개설	100
여수산단 진입도로 개설	2,500
여수공항 확장	200
무안국제공항 확장	200

‘세종시 수정’ 사과할까

李대통령 27일 ‘국민과의 대화’서 입장 표명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7일 세종시 수정 문제,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정 현안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밝힌다.

24일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 밤 10시부터 100분간 MBC가 주관하는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세종시 수정 추진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민생현안, 경제상황 등 국정현안과 국민의 관심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이날 방송을 통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약속한 점에 대한 사과 및 유감 표명 여부와 함께 세종시 논란과 관련,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이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약속한데 대해 사과하고 세종시 수정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이) 이날 세종시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깊이 있게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통령과의 대화’는 이 대통령의 모 두발언(2분)에 이어 일반 및 전문 패널과의 질의 및 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TV를 통해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 촛불시위와 용산참사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지방행정체제 개편 합의된 것 없다”

허태열 국회 특위 위원장 민주당 반발에 사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허태열 위원장(한나라당)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몇몇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합의했다고 밝힌 내용에 대해 “합의된 것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허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는 지난 9월 3차례 공청회에 이어 이달 11일~12일 두 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8개 법안을 놓고 대체 심의를 했다”며 “추진기구를 비롯해서 시·군·구 통합 등 지방행정체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현안과제에 대해 소위위원들의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사안에 따라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도 있었지만 사안들이 매우 중요하므로 앞으로 권역별 순회공청회와 전문가들의 의

견을 충분히 들은 후 신중히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소위의 공식의결을 거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합의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해명은 23일 최인기 민주당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의 강력한 항의 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25~27일 전국을 5대 권역별로 나눠 지방행정체제개편 방안과 관련한 순회 공청회를 개최한다.

25일은 서울·경기·인천·강원 등 중부권(국회), 26일은 충청권(대전시청)과 경북권(대구시청), 27일은 호남권(광주시청)과 경남권(창원 경남발전연구원)을 대상으로 각각 공청회를 실시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성공 박람회 힘 보탬게요”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부산발전협의회와의 지원협정서 체결식이 24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광현 2012여수세계박람회여수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오현섭 여수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김병일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 사무총장, 박준영 전남지사, 신정택 부산발전협의회위원장, 황금추 여수박람회 전남도 범도민지원협의회 의장

여수박람회 부지 조성 30일 첫 삽

신항지구 2부두서 기공식 주제관 건립 등도 곧 착수

2012 여수세계박람회 부지 조성공사가 이달 말 ‘첫 삽’을 뜨는 등 박람회 기반시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여수 신항지구 제2부두에서 국내외 주요인사를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장,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람회 부지조성 공사 기공식을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기공식은 개회선언과 경과보고, 강동석 위원장의 환영사, 박준영 전남도 지사의 축사, 발과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직위는 이번 기공식이 남해안권 발전 및 지역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여수박람회 부지조성 공사를 기념하고, 본격적인 박람회 사업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기공식을 계기로 여수박람회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천명하고,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념식 행사를 전후해 홍보계획을 수립, 박람회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 및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지조성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박람회 주제관과 국가관, 한국관, 아

쿠아리움, 바다전시장 등 주요 시설물 공사도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위는 앞서 박람회 부지 조성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여수시 수정·덕충·공화동 일원 40만8천㎡ 부지 내에 있는 819채의 지장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시작했으며, 지장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4만1천㎡의 폐기물 파쇄 작업에 들어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국제박람회지원 특위 구성 추진

민주당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해 국회 내에 ‘국제박람회지원특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24일 민주당 유은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와 여수 박람회 지원 등을 위해 국제박람회 특위 구성에 공감대를 이룬 상태며 조만간 양당 원내대표 회담 등을 통해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근 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이 국회 내에 특위가 너무 많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으나 여수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타 지역의 국제적 엑스포 유치 지원 등을 위해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을 표명했다”

고 말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가 확정됐고 특별법 통과 등이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지난 8월 해체된 여수 엑스포 지원 특위 제 구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며 국회 내의 국제경기지원 특위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수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조성 지원과 특별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및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회 내의 특위 재구성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Seogi Bocheongi
Seogi's Dream is Seogi's Dream!
Seogi's Dream - Seogi Bocheongi